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1월 28일(주일) 제1370호

더 나누고, 더 전하고, 더 알리고!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12월 4일부터 시작
11개 공동체,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1천 가구 지원

대학청년부 '2021 사랑앓나눔'이 시작된다. 12월 4일(토), 11일(토), 18일(토)에 진행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가 참여한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불우이웃 및 차상위 계층 가정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셉청년부는 중랑구복지관, 길청년부는 종로노인복지관, 여호수아청년부는 교남주민센터, J4U 청년부는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SNS 청년부는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W청년부는 나섬교회, 갈렙청년부는 답십리주민센터, CHPLUS청년부는 등대교회, Pole2대학부는 작은자교회, 허브대학부는 신앙장로교회와 중앙사회복지관, 하늘대학부는 관악노인복지관을 섬길 예정이다.

올해 사랑앓나눔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실시한다. 대상자의 문 앞에서 생필품 및 쌀, 반찬 등을 전달한다. 사역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한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정말 많다"면서 "사랑앓나눔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지난해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사역.

최은경 자매(길청년부)는 "작은 도움에도 큰 것을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올해도 더 많이 나누고, 행복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랑앓나눔은 서울 전역에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눠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대표적인 겨울사역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엔젤트리 사연 벌써 1,400여 건 연결 3,000건 연결 대기중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한 2021 엔젤트리 사연 연결이 벌써 1,400여 건이나 연결됐다. 11월 26일 기준으로 엔젤트리 사연 1,400여 건이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연결됐다. 아직 3,000건의 사연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2021 엔젤트리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국내 10개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게시판에서 사연을 뽑아 기도한 다음 대상자에게 선물을 보내면 된다.

김현주 피택장로(사회선교본부)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선물을 직접 포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장로장립예배 및 장로은퇴식

12월 4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 장로장립 47명
12월 4일 오전 6시 양재 기쁨홀 장로은퇴 13명

온누리교회 신임 장로 47명이 세워진다. 12월 4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다.

2021 장로장립예배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당회서기 정진호 장로의 대표기도, 장로합창단 특선, 김태영 목사(증경총회장) 설교, 간증, 2부 서약, 세족식, 안수기도, 선포, 권면 및 축하특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태영 목사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를 주제로 권면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한필규 피택장로(차세대사역본부)는 "함께

함과 어린이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2월 4일 오전 6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리는 당회에서는 장로은퇴식이 열린다. 대상은 1951년생(만 70세) 13명(강영재, 김의득, 나상권, 문창호, 박성근, 송영범, 안용태, 이재규,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홍범식)이다. 장로은퇴자들은 시무장로에서 은퇴하고 사역장로서 임무와 역할을 시작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오전 6시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12월 13일(월)부터 1월 21일(금)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6시에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 이기원 목사, 강동진 목사(보나콤공동체 대표),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천종호 판사, 노규석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유튜브, CGNTV)로 참여하면 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순별 단체채팅방을 활용해서 말씀과 중보기도 등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교회에서 매일 순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새벽기도회 메시지, 중보기도제목 등을 발송한다. 이를 바탕으로 순별 단체채팅방에서 새벽기도회 은혜를 '한줄 기도문'으로 나누고, 중보기도에 참여하면 된다.

당회

일시: 2021년 12/4(토) 오전 6시
장소: 양재 기쁨홀
안간: 2022년 예산안, 장로은퇴식
2022년 당회운영위원회 투표

제직회

일시: 2021년 12/5(일)
2부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안간: 2022년 예산안처리

공동의회

일시: 2021년 12/5(일)
3부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안간: 2022년 예산안처리

“친구들아!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드리자!”

차세대, 1년 6개월 만에 예배당 예배 재개

차세대 예배당 예배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을 만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허로희 어린이(서빙고 예꿈)가 그 기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들려줬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정말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만 보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진짜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뛰어가고 싶을 만큼 기뻐다. 엄마가 사주신 예쁜 옷도 입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도 챙겼다. 얼른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교회로 가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가 정말 궁금했다.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너무 어려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궁금하고 기대되고 신났다. 빨리 교회에 가보고 싶었다. 교회에 와보니 엄청 멋지고 좋은 곳이었다. 사람도 많고, 건물도 정말 컸다.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스마트폰으로만 만났던 선생님이 계셨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셨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이 한 명씩 예배당으로 들어왔다. 친구들과 인사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놀았다. 매일 집에서 혼자 놀아야 해서 심심했는데 친구들과 같이 노니까 너무 재미있었다.

예배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선생님, 엄마랑 같이 찬양도 부르고 울

동도 했다. 집에서 엄마 아빠랑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찬양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는데 용기 내서 같이 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지만 엄마랑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신났다.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가고, 과자도 먹고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선생님께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도 꼭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친구들이랑도 헤어지는 게 아쉬웠다. 더 놀고 싶었는데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얼른 맛있는 과자도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친구들아!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자! 꼭 같이 예배드리자!”

차세대 예배당 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예배당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차세대 예배도 허용된 인원만큼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싶은 차세대 학생들과 학부모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예약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면 된다. 예배당 예배 예약은 월요일 자정부터 할 수 있다. 일요일 밤에 예약한 예배는 예약되지 않는다. 예배당 예배 예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차세대 예꿈 영아부(18~40개월) 예배에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때는 보호자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차세대 학생들과 학부모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좌석 QR코드 스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발열 및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으면 예배당 예배 참석하면 안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경 QUIZ

출제범위: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
비유와 기적 2단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나요? 아래 문장과 성경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1.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심을 증거하셨어요.

2.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께서 하나님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글:그림 명난희

10.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들 작품



〈하나님을 찬양해요!〉

동생이랑 같이 차세대 어드벤처 작품으로 종이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마이크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 윤라운 어린이(서빙고온누리교회 예꿈)



〈사랑을 전하러 출동!〉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 한해와 학생(강동온누리교회 꿈땅)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2)

갈라디아서 4:1~11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끊임없이 저지합니다. 타락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을 저버린 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불순종이 우리 삶을 타락으로 이끕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으려 해도 올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저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과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는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셔도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각자에게 축복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믿음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인간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입니다. 약속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대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소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교만, 악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역사를 요약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의미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의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성취되는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모세의 율법이 폐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까지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그 약속을 보완하고, 그 약속을 빛나게 하고, 그 약속이 약속되게 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때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시점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모든 때를 완벽하신 능력과 섭리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시점과 율법이 마무리되는 정확한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율법이 더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때가 왔고,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율법의 일시적인 기능은 끝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의 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그때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제국에 의해서 평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시 로마제국이 그 지역을 평정하기 전까지는 바다에는 해적이 들끓었고, 내륙에서는 내전과 강도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법으로 통치하면서 치안이 잘되는 안전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도로를 곳곳에 깔았습니다. 왜 도로가 만들어졌을까요?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을까

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데 그 길이 필요했고, 평화와 안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지역은 로마제국의 길로 연결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헬라어가 모든 로마제국에 통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조차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나왔습니다. 헬라어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몰라도 구약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정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했고, 당시 로마제국 사람들에게 범신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도 급증했습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며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 은혜의 때, 믿음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예화를 드는데 4장에서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어린 상속자를 예로 듭니다.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된 어린 상속자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상속자로서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행사할 수 없는 시기를 둔 것입니다. 후견인 혹은 재산관리인을 두어서 상속받은 자녀를 훈련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실제 로마제국에서는 15세까지는 보호자의 아래에 두고, 25세까지는 후견인이 반드시 있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통제 아래 존재해야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의 위험과 재산을 귀하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 어린 상속자는 겸손을 다지고, 합당한 상속자가 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최종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써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포로가 되고, 율법 아래 계속 있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

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율법을 주신 모든 때가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4-5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 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에게서 난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하시는 승리가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아담의 혈통과 다른 두 번째 아담입니다. 전혀 새로운 인간,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에 대해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율법의 효력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율법이 할 일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율법 아래 순종하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됨의 명분을 선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갈 3:13).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피조된 인간은 죄를 범해서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아들이 모든 피조물 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섰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14면에 계속)

2021 권사, 명예권사, 안수집사 임직 소감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새 리더십이 세워졌다. 11월 27일(토) 오후 4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2021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권사 224명(명예권사 6명, 권사 218명), 안수집사 284명(남자 92명, 여자 192명)이 임직됐다. 새롭게 임직받은 김수임 권사(경기A공동체), 이종희 명예권사(이촌공동체), 임용환 안수집사(평택온누리교회), 박지원 안수집사(대전온누리교회)의 임직 소감이다.

/ 편집자 주

“다음세대에 모범이 되는 권사”

청년부에서 성인공동체로 옮긴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남편이 순장을 맡게 되었다. 우리 부부가 공동체 사역을 시작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주변에서 “왜 아직 권사가 안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권사 직분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권사 임직을 받을 나이가 아니었다. 올해 내 나이가 만 50세가 되고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동체 권사님들께서 먼저 반가워 하셨다. ‘때가 되면 권사 임직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연락을 받고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났다.

경기A공동체에서 보고 배운 권사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도’다. 공동체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게 육아에 지친 젊은 엄마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불러 밥도 사주시고 기도와 격려해주시는 모습을 많이 봤다. 공동체 행사가 있을 때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권사님들이시다. 장례사역, 병원심방도 권사님들이 도와가며 섬기신다. 나는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선배 권사님들이 시키는 일은 잘할 자신이 있다. 심부름이나 공동체

식구들 돕는 일들에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죄송할 정도로 직분을 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 ‘권사가 안 돼도 된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는데 ‘권리와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과 은혜만 누리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임직훈련을 받으면서 이 마음을 회개했다. 다음세대를 생각하며 기성세대로서 본분을 다하고 섬김에 적극적인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사 임직을 받고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

이 직분과 기회를 귀히 여기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순 식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섬기자”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다음 세대에 모범이 되는 권사가 되고 싶다.



김수임 권사
(경기A공동체)

“본을 보이고, 예수 만나도록 돕는 권사”

중고등학교 동창 중에 모태신앙으로 아주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내가 쉽게 결정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조언을 해주고 중보기도도 해줬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다”고 말해줬는데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에게 교회 가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을 보여준 친구였다.

2011년 집안에 큰 환란이 닥쳤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제 나이드 많은데 어쩌나’ 눈앞이 캄캄했다. 환란을 당하고서 바로 교회에 와서 었드렸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순 배정을 받지 않았다면 이전처럼 금방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른다. 나의 신앙은 순에서 자랐다. 김희수 순장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순원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다. 내가 닦고 싶은 리더의 본보기다.

임직자스쿨을 마치고 명예권사 임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임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동안 나는 ‘뭘

해달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다. 이제는 직분에 걸맞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일대일제자양육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더욱 힘쓸 것이다. 기회가 되면 탈북민들의 영아교육을 돕고 싶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내 친구와 순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남은 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요즘 육기를 보면서 깨닫고 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환란과 고난은 축복이다. 그 환란과 고난 덕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뿐이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 은혜를 교회와 세상에 전하고 싶다.



이종희 명예권사
(이촌공동체)

“공동체에 귀감이 되는 안수집사”

평택온누리교회 다니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평택의 한 교회를 소개받았다. 온누리교회와 이름이 비슷했다. 그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 그만 온누리교회로 잘못 찾아갔다. 당황하고 있는데 예배 안내 장로님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왕 오셨으니 예배드리고 가세요”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택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내 기도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같았다.

“그래, 여기야!”

그때부터 평택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다. 지난해 순장님이 나에게 안수집사 임직을 권하셨다. 나는 대답은 했지만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임직을 받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질 테고,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는 데 성도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생각을 했다.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이였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순장님이 임직자스쿨 훈련을 받고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라고 권면하셨다. 몇 년 전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설교 중

에 “나태함도 죄”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지난해의 교만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임직자스쿨에서 훈련받으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위해 직분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 임직자스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다. 내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터와 사역에서 소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공동체에 귀감이 되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임직자스쿨을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 장로님, 스태프들, 임직받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모두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되기를 기도한다.



임용환 안수집사
(평택온누리교회)

“작은 예수 사명 감당하는 안수집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내가 안수집사 임직을 받아도 되는지 마음의 갈등이 계속 있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는지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날로 커졌다.

부담감에 어쩔 줄 모르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임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자녀들이 나에게 “왜 안수집사를 하느냐”고 물었다. 이전 같았으면 제대로 답해 주지 못했을 텐데 결단한 다음이라 그런지 답이 술술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행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선행한 일을 열망하는 엄마 아빠가 안수집사를 사모하고 임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해주었다.

안수집사 직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았다. 처음 든 생각은 성도와 안수집사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임하고자 직분을 받는 것이지 안수집사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감사하게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받지만 교만해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안수집사는 주님의 일꾼이다. 성도들을 더 살뜰히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인이 아니라 성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응하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

부족한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은혜를 놓치지 않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 예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고자 한다. 작은 예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안수집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박지원 안수집사
(대전온누리교회)

도전하는 크리스천을 응원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장문석 장로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 그리고 신앙

부드럽고 신사답다. 조곤조곤한 말투에서는 따뜻함이 묻어있었다. 삶과 비전 그리고 신앙을 말할 때에는 눈빛부터 달라졌다. 강단 있고 단단했다. 기자가 만난 장문석 장로(강남A공동체)의 인상이다. 장문석 장로는 분리막(멤브레인) 수처리 전문회사 에코니티(주)의 대표다. 세계적인 대기업(수에즈, 듀폰, 미쓰비시레이온 등)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토종 중소기업으로서 어깨를 겨루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처리 전문회사를 만든 장문석 장로를 만나 창업 비화와 비전, 신앙훈련으로 거듭난 삶의 고백을 들었다. 너무 힘든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분리막(멤브레인) 수처리’라는 용어가 낯설다. 머리카락 두께 200분의 1크기의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하수를 통과시켜 여과시키는 기술 및 공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 ‘멤브레인’이라는 필터 기술을 이용해서 하수를 깨끗한 물로 여과하는 기술이다.

장문석 장로가 에코니티 회사를 창업한 것은 1998년이다. IMF 때였다.

“IMF 때 다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할까, 창업해서 새 출발 할까 고민하다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말로 ‘영끌’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장문석 장로가 다니던 회사는 그의 큰아버지가 창업한 회사였다. 그 충격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큰아버지가 평안남도 출신인데 1924년 고향에서 양조(釀造)장을 세우셨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이북에서 부산으로 피난 오셔서 다시 양조장을 만들고 키우셨는데, 23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들이 모두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가업에 열과 성을 쏟았다. 그렇게 세운 가업이 IMF 때 한순간에 무너졌다. 설상가상 가족을 잃는 슬픔마저 겪어야 했다.

“1998년 회의(和議)에 들어갔고, 5년 뒤 경영권이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온 가족이 일구고, 자신도 몸 바쳤고, 자식들이 대를 이어 물려받을 줄 알았던 회사가 완전히 날아갔다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소천하셨습니다.”

온 식구가 매달려 일군 가업이 다른 회사에 넘어간 일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했을까? 그런데 장문석 장로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그 일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회사를 창업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장문석 장로는 호기롭게 회사를 창업했다. 그러나 회사 운영은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려움이 많았다.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창업을 반대했습니

다. 제가 회사를 만들면 망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업가 유형(type)이 아니라고 만류하더라고요.”

장문석 장로가 성향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경영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문석 장로는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느 가부장적인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뎠던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당시 저는 신앙으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온누리교회에 오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내 혼자 순예배에 참석하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장문석 장로가 변화된 것은 2003년이다. 두란노아버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내 또래 남자들이 모여서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하라고 숙제를 내 주더라고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스테프로 섬기면서 장문석 장로의 신앙이 대전환점을 맞았다.

“스테프 기도모임을 갔는데 그곳에 온 남자들이 그동안 제가 알던 세상의 남자들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분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여러 가지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교회에 가고 있더라고요. 매일 교회에 가면서 술 마실 시간이 없어서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웃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것은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딱딱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에서 아들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신앙훈련은 사업의 고비마다 그가 넘어지지 않는 길라잡이가 되어주었다.



장문석 장로(에코니티 대표)가 에코니티 멤브레인 필터 전시장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다.

“한번은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교회 지체들이 저에게 계속 ‘용기 내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회사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회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 여러 신앙훈련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너 때문에 안 됐다, 나라가 문제야’라고 남 탓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남 탓할 게 아니라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를 남이 아니라 제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2015년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대규모 적자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3년 동안 엔지니어링(설계)한 현장에서 클레임(이의제기)까지 발생했습니다. ‘회사도, 집도 다 날라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정말 큰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과대포장해서 팔았구나, 절대 과대포장이나 과대광고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없는 것도 있어 보이게 과장하고, 마케팅해야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을 말이다. 회사의 큰 위기 속에서 장문석 장로는 회개하며 회사의 나아갈 방향을 뒤집었다. 직원들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오류와 갈등도 교회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서 해결했다.

“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것처럼 직원들과 대화하며 갈등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게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업 멤버 4명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비결이다.

온 국민이 힘들어하던 IMF 때 기업이 망했다. 절망하거나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고비마다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냈다. 장문석 장로가 유난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많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모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거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경험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반대할 때, 장문석 장로는 스스로 단정 짓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다. 힘든 일이 정말 많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용기 내”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도전은 계속됐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적용한 덕분에 지금의 그가 존재하게 되었다.

“선한 기업이 우수한 기업을 만듭니다. 우리 회사가 선한 기업이 되어서 다른 회사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잘 참아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폭력

시공간 가리지 않는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단계에 맞춰 학교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모처럼 학교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 그런데 우려되는 일이 있다. 대면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교회와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어려웠다. 학교폭력 기사를 작성하는 것 말이다. 학창시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관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때때로 떠오르는 기억이 기자의 마음에 자꾸 생채기를 냈다.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

기자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아빠가 사역을 옮기면서 3학년 새 학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전학을 갔다.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학생들은 전학생에게 관심이 많았다. 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금세 학교에 퍼졌다. 문제는 기자가 1형 당뇨 환자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생소한 병명에 아이들의 관심이 더 많이 쏠렸다. 짓궂은 아이들 몇 명이 “채 단 거 많이 먹으면 쓰러진대. 한 번 먹어보자”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지금 같으면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춘기라 그랬는지 그 말이 정말 큰 상처였다. 한동안 방학이 얼른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잔뜩 주눅 든 채 학교에 다녔다. 밥 먹기 전에 꼭 맛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를 학교 화장실에 숨어서 맞았다. 그 짓궂었던 아이들은 기억조차 못 할 그 말을 기자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곱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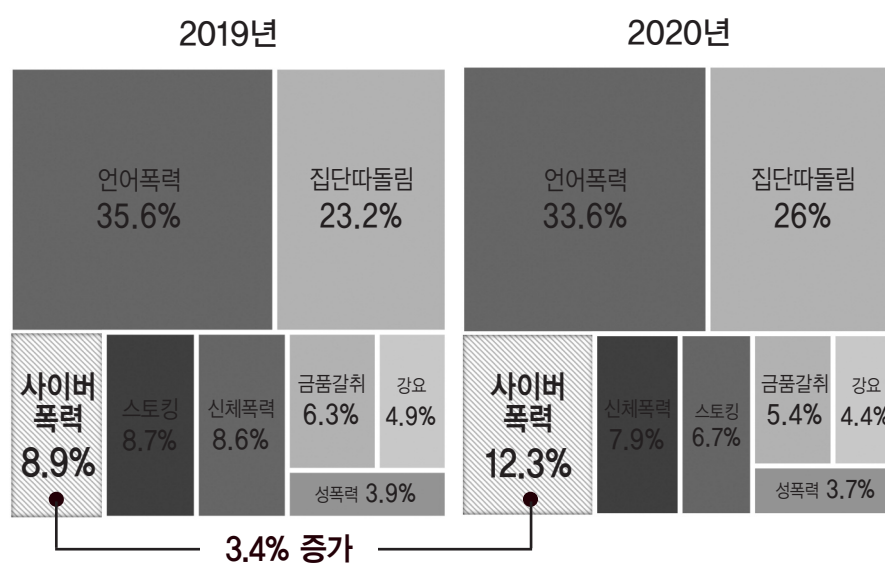
기자는 늘 학교폭력 피해자였을까? 그건 또 아니다. 기자의 학창시절을 곰곰이 돌아보면 때때로 방관자 위치에 있었고, 어느 날은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잘 씻고 다니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냄새가 난다며 괴롭힐 때 모른 채 지나갔다. 반에서 함께 앉을 짝꿍을 바꾸는 날이면 그 친구와 앉기 싫다고 말하는 친구들 틈에 끼어서 “나도”라고 한마디 보탠 적도 있다. 크든 작든 학교폭력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날이 많았다. 그 어릴 적 상처와 기억들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 기자를 괴롭힌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괴롭힘 ‘사이버 불링’

기자의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를 서두에 쓴 이유가 있다. 누군가는 별일 아니라고, 그냥 장난이라고 넘어가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겪은 일이 10여 년 전인데 아직도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강도가 더 심해지고, 피해는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실태조사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교 학생 295만 명 중에서 9천 3백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고, 2만 6천 9백명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복이 두려워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도 적지 않으리라고 추정한다.

문제는 학교폭력이 학교 장면을 넘어 온라인에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을 합해서 생겨난 신조어.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라 불리는 학교폭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에서 전년 대비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은 2019년 35.6%에서 2020년 33.6%로 2% 감소했고, 집단따돌림은 2019년 23.2%에서 2020년 26%로 2.8% 증가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1년 사이 3.4%나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줄어들면서 학교 장면에서 일어나던 언어폭력, 스톱킹(8.7%→6.7%), 신체폭력(8.6%→7.9%), 금품 갈취(6.3%→5.4%), 강요(4.9%→4.4%), 성폭력(3.9%→3.7%) 등의 물리적인 폭력은 줄었지만, 온라인에서 새로운 폭력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하

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폭력에 노출된다.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이뤄진다. 피해 학생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을 게시하기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기도 한다. ‘떼카(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단체로 욕설과 비난을 하는 행위’, ‘방폭(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자만 남겨놓는 행위’, ‘카톡감옥(욕설을 참지 못한 학생이 단체채팅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서 괴롭히는 행위)’, ‘와이파이 셔틀(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데이터를 빼앗아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기프트콘 셔틀(피해자에게 억지로 기프트콘을 선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안티 카페(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카페를 만들어서 험담하는 행위)’ 등이 모두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모바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사이버 학교폭력의 피해가 상당한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청소년들은 폭력에 더욱 무감각해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폭력 가해자 중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27%, 중학생은 39.9%, 고등학생은 49.5%가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 24시간 쉬지 않고 온라인에서 피해에 노출되는 피해 학생은 우울증, 대인기피증, 학습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는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면 맥박이 빨라지거나 숨이 거칠어지는 등 신체적인 증상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교회와 어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 필요

학교폭력은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친구들과끼리 장난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났다. 교회와 어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푸른나무재단에서 발표한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피해자 학생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18.8%나 됐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21.5%를 차지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잘못해도 혼나지 않은 학생 비율이 너무 높다.

기자가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었다. 새 학기 자기소개 시간에 기자가 직접 친구들에게 1형 당뇨 환자인 것을 밝히고 1형 당뇨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던 국어선생님이 계셨다. 그 시간 이후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남은 중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잘 씻지 못해서 따돌림당 하던 친구를 눈여겨보던 담임선생님이 기자와 몇 명 친구를 따로 불러 그 친구를 부탁하셨다. 그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고, 우리의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셨다. 그 친구를 도움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날 이후 그 친구에게 기사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이 생겼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곳이다. 학창시절은 사회인으로서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른다. 아이들의 작은 사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더 넓은 사회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

명화로 읽는 성경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마사초의 '낙원추방' (1424~1425년)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인류 최초의 남자 아담과 그의 배필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는 대사건을 다룬 그림은 많다. 가장 주목받는 그림 중 하나가 마사초(1401~1428년)가 그린 '낙원추방'이다. 왜

그럴까? 마사초가 서양미술사상 최초로 원근법을 도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원근법은 회화의 기본적인 기법이 되었지만 15세기 초반 하더라도 사정이 판이었다. 사람들은 (벽화의 경우) 그냥 벽면에 맞맞하게 인물과 배경을 늘어놓은 것을 당연시하고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마사초가 그의 대표작인 '성 삼위일체'를 성당 벽면에 그려놓은 것을 보고는 경악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그림을 봤다. 분명 벽면은 평평한 평면인데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벽에 구멍이라도 뚫려서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입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전면에서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인다면, 예수님 뒤쪽으로 뭔가 가상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서양미술사는 원근법을 도입한 마사초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아담과 하와의 추방,
그들을 내쫓는 천사

오늘 창세기 2장, 3장과 함께 묵상할 그림도 마사초가 그린 '낙원추방' (1424~1425년)이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 벽면에 남아있는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한번 보면 아담과 하와의 표정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 강한 인상이 오래 남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노트에 마사초에 대한 찬사를 기록해뒀다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져진다.

먼저 아담을 보라!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에 의해 에덴동산에서 추방되고 있다. 걸음을 재촉당하는 중에도 실의에 빠져 낙망한 아담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께나 그 자신에게나 부끄러워 차마 눈을 들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담의 얼굴은 손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아담의 옆에서 함께 길을 나선 하와의 표정도 압권이다. 그녀는 후회와 한탄에 젖어 지상

낙원을 떠나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속절없다. 하와는 두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다. 이런 자세를 미술가들은 '베누스 포디카(Venus Podica)'라고 한다. 베누스 포디카는 라틴어로 '정숙한 비너스'라는 뜻이다. 한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아랫도리를 가린 모습이 여성적인 정숙함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아담과 하와의 몸매는 이상형의 육체적인 미를 추구하던 전통을 따라 쪽 뺀 팔등신을 자랑한다. 당시 많은 조각가들이 즐겨 만들었던 다비드상이나 비너스상의 몸매를 빼닮았다. 다만 아담의 긴 다리에 비해서 팔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고 몸통이 축소되어 있는 등 비율이



마사초가 그린 '낙원추방' (1424~1425년,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

균형 잡혀 있지 않다는 비판도 받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때보다 인체 해부학적인 공부가 무르익지 못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머리 위에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인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들이 추방된 이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림'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4)고 기록되어 있다.

서기 500년경 아레오파구스의 디오니소스는 천사에게 9가지 계급이 있다면서 '천사 구품

론(九品論)'을 주장했다. 제1계급이 치천사(세라핌)이고, 그다음이 지천사(그룹)이다. 다음으로 좌천사(트론즈), 주천사(도미니온즈), 역천사(버추즈), 능천사(파워즈), 권천사(프린시펄리티즈)이다. 제8계급이 대천사 혹은 천사장으로 불리는 아크 엔젤스이고, 마지막이 천사(엔젤스)계급이다.

르네상스 시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낙원 추방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천사가 제8계급인 대천사에 속하는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생각했다. 천사장은 하나님의 중요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 천군천사(天軍天使)를 지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추방이 이루어진 후에 에덴동산을

래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난관에 봉착한 인간은 신에게 의지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시 17:8)라는 표현처럼 말이다.

제1의 아담과 제2의 아담
두 번째 인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들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강을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칼을 든 미카엘 대천사의 표정이 단호하고 엄숙하다. 대천사의 손가락은 아담과 하와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낙원을 떠나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시베리아 별판처럼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적절하게도 마사초 그림의 배경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허허벌판처럼 묘사되어 있다. 지상낙원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의 맨발은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천사가 들고 있는 칼 역시 축복과 저주라는 이중적인 상징이다. 칼은 그것을 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을 상징한다. 지금 미카엘 천사장이 든 칼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거역한 최초의 인류에게 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한다. 마치 최후의 심판 때에 천사들이 오른손에 칼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성경에서 나무는 지복(至福),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더불어 '영원'을 상징한다. 특별히 동산 한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생명의 나무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피조물이 허락없이 이를 취하려 했다가는 불순종에 따른 징벌을 면하지 못한다. 선악과 역시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열매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에게서 첫 번째 인류의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의 강생(降生)을 상징한다. 선악과 열매가 최초의 인류가 저지른 원죄(불순종의 타락)를 상징하는 옛 열매라면, 새 열매는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두 번째 인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골 1:11).

비록 인류는 최초의 인류인 제1의 아담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힘입어 새 열매를 맛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물론 저 그림 속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또다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말이다.

“

비록 인류는 최초의 인류인

제1의 아담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힘입어

새 열매를 맛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

“라떼는 말이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기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던 부분이 많이 보이고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양쪽 집안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습관 차이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멘토님은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부부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멘토님!”

올해 결혼 35주년이 되었다. 엇그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이 순간이동한 것처럼 훌쩍 흘러버렸다. 어느 날 한강 둔치를 산책하다가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당신은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당신이 제대로 설명해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젊은 부부가 투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35년 전 결혼 초기에 한 대화와 그 젊은 부부의 대화가 똑같은 생각이 들어 절로 웃음이 나왔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인

가보다. 부부싸움의 해결책은 내 생각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풀어질 때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부부간 말의 상처는 바위로 상대를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 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서로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부부의 힘이다.

부부싸움은 어떤 것을 해결해달라는 것보다 나를 이해해달라는 서로의 외침이고,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다.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미워!”할 때 정말 아빠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기에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해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편(남자)은 결론만 말하지만, 아내(여자)는 과정을 말하고 싶어 한다. 물건을 살 때도 남편은 “이것 사자”고 하지만 아내는 “왜 그 물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남편이 오래 잘 들어주면 아내는 너무 행복해한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들은 음식 준비며, 시댁 식구와 친척들 만날 생각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남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 아내는 만며느리다. 명절 때 음식 준비다 뭐다 일하고 피곤한 아내를 위해 내가 하

는 것이 있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집으로 오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내가 정말 좋아한다.

나도 결혼 초기에는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서로 믿었기에 그 배신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속았다는 마음이 들게 된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자기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말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속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속아서 결혼했다는 후회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한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내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신혼 때는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몰랐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키우는 아내의 마음을 몰랐고, 명절이 되면 큰살림에 만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아내의 마음을 몰랐다.

설거지하는 행복을 느낀 것은 나이가 들어서다. 젊었을 때는 설거지를 제대로 못 해서 야단을 맞기도 했는데, 지금은 설거지를 꼼꼼하게 하고 나서 마른행주로 냄비와 그릇에 있는 물기를 싹 닦은 다음 선반에 올려놓는 내

모습을 보고 아내가 칭찬해준다. 서로 가장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서로를 너무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한다.

결혼 35주년이 된 지금 우리 부부에게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4명 있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아내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아내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 크리스천 가정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 생각으로는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도하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 기도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부부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함께 가는 한 몸이기에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보며 살자.



문영기 장로
(W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혼의 목적 ‘성장’ 과 ‘성숙’

아내와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나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이 드럼세탁기다. 드럼세탁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 찢찢했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 드럼세탁기 전원 버튼과 함께 있는 수많은 기능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능이 있었다. 내가 기대했던 가장 이상적인 세탁기 버튼과 기능은 ‘시작’ 과 ‘멈춤’ 정도라고 할 수 있었다. 세탁을 세심하게 잘 해보자는 생각보다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 기능들이 다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 기능들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했다. 표준 코스, 스피드 코스, 행균, 탈수 강도, 울 코스, 물 온도 선택, 살균 코스 등 여러 기능을 보면서 세상의 세탁 기술이 몹시 발전했지만 나만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라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버튼을 잘못 눌러서 평소처럼 순조롭게 세탁이 진행되지 않았다. 슬슬 짜증이 올라왔다. 드럼세탁기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다. 투덜거리기를 몇 번 하면서 나는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나도 모르게 ‘드럼세탁기 설계자’와 내가 상상 속에서 소통을 시도하게 됐다. 나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데

도대체 설계자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에 생각을 더하니, 드럼세탁기 설계자와 소통이 되는 것 같은 이미지가 그려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드럼세탁기 설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씩 헤아려졌다. ‘아하! 이것을 의도하면서 설계자가 이 기능을 여기에 만들어 넣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면서 드럼세탁기의 수많은 버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설계자의 의도가 분별이 되면서 처음 드럼세탁기를 대하면서 느꼈던 당황스러움이 많이 사라졌다. 설계자의 의도와 기대 등이 수용됐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결혼생활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생활이 지속한다면 결혼을 설계하신 분의 의도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즐거움을 누리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결혼 설계자의 마음을 알기 위한 절실한 시도를 하게 될까? 당연히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다. 기대했던 결혼의 기대가 좌절됐을 때,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

되는 묵상 포인트는 ‘도대체 결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도대체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결혼을 만드셨고, 부부가 하나되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것일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신혼 때까지 나는 오직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해야 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혼의 바람직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래서 마음에 간혹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 짜증을 무시하고 억압하곤 했다. 행복만이 결혼의 최상의 가치라는 인식이 있었고, 당연히 이것이 결혼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결혼 설계 의도에도 온전히 부합하는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결혼은 행복만이 주어지지 않는다. 때때로 불만족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불행감도 느낄 때가 있었다.

부부는 싸우기도 한다.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크리스천들은 매우 심각하게 결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고 원망한다. 만일 현재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결혼 설계 의도’, ‘하나님의 결혼 디자인의 목적’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부부의 갈등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

서 결혼의 디자인 목적이 오직 행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화를 목표로 한 ‘성장’과 ‘성숙’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 깨달아 질 것이다(엡 5:21~27, 벧 1:15~16). 물론 이런 과정에서 결혼의 행복이 부부와 늘 함께한다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전 9:9). 성장과 성숙이 결혼생활을 디자인하신 결혼 설계자의 주요한 의도라고 확신한다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의 변화될 것이다.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감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된다. 결혼을 통해서 나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어설픈지도 알게 된다. 결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경험하는 것이다(엡 5:24~25). 결혼생활에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결혼 설계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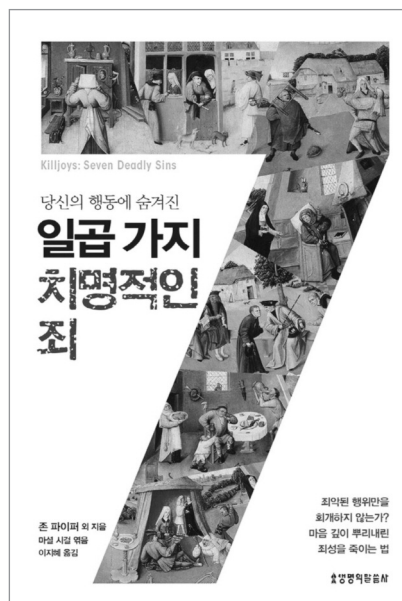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
존 파이퍼 외 8명 저 | 생명의 말씀사
| 10,000원

오늘 소개할 책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는 저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외에 8명의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한 단락씩 맡아 쓴 책이다. 책의 제목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일곱 가지 치명적이면서도 매우 일

반적인 죄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으로 제시된 죄악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회개하기도 한 목록일 것이다. 책 내용 중에서 교만과 분노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교만에 대해 글을 쓴 제이슨 마이어(베들레헴침례교회 목사)는 교만은 여섯 형태로 나타난다고 규정한다. 자만, 자기 과시, 자기 정당화, 자기 비하, 자기 격하, 자책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교만은 자만, 자기 과시, 자기 정당화의 영역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제이슨 마이어는 자기 비하, 자기 격하, 자책 역시 교만의 형태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교만은 ‘자기’에게 몰두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자기 세우기’와 과도한 ‘자기 무너뜨리기’도 근원적으로는 교만의 죄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을 경험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제안한다. 자기를 중심에 두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한다.

C.S. 루이스는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겸손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교만과는 다르게 자기를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을 수 있다.

조너선 파넬(시티즈교회 목사)은 잭 밀러 교수의 글을 인용해서 분노를 ‘인간 마음속 잠재의식의 욕구에 자리 잡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감정’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분노의 뿌리가 되는 죄를 찾으려면 표면 아래를 파고 들어가는 힘들지만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분노는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기반한 것이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게 돌아보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분노는 매우 파괴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진 죄이다. 분노는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는 분노의 대상을 죽이고, 영적으로는 분노하는 주체를 죽인다. 그러나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니다. 분노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측면에서 다른 죄들과 구별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신다는 점이다. 성경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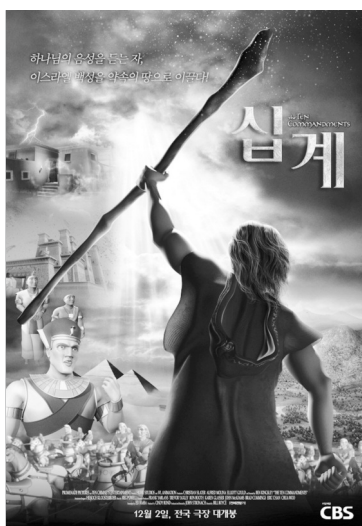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의로운 것이나 인간의 분노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분노의 동기이다. 분노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이다. 분노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분노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대부분의 분노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죄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죄를 향해서 분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같은 분노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분노에 대처할 수 있을까? 분노를 초기에 분석해야 한다. 죄로 인한 나의 어리석음을 슬퍼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기억하고 모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분노라는 죄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



김재승 목사
(양재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불만한 영화 ‘십계’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약속의 하나님’



〈십계〉
빌 보이스, 존 스트로나크 감독
| 2007년 개봉 | 애니메이션

오늘 소개할 영화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는 저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외에 8명의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한 단락씩 맡아 쓴 책이다. 책의 제목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일곱 가지 치명적이면서도 매우 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한 바로는 “이스라엘 아기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가 가득한 어느 날 애굽의 공주가 갈대상자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 아들로 키우는데 그가 바로 ‘모세’다.

영화 ‘십계’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렸다. 열 가지 재앙부터 홍해의 기적까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영화 ‘십계’에서 보여주는 자세하고 섬세한 출애굽 이야기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금 보여준다. 어려운 성경 속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녹여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영화 ‘십계’는 2007년 해외에서 먼저 개봉해서 많은 관객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선사했다. “성서적으로 가장 완벽한 모세 이야기”,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최고의 영화”라는 호평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12월 2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배우 장광, 성우 장민혁이 더빙에 참여했다. 영화 OST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의 ‘오 신실하신 주’다.

다시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니지마 조 목사’

일본에 ‘근대교육’과 ‘복음’ 전한 사무라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근대화에도 기독교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드물다. 메이지유신 시대에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대를 이끈 6명의 교육자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니지마 조 목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일본 유명 대학 도시샤(同志社)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니지마 조는 사무라이였다. 1860년대 서양과 일본 사이의 불평등 조약을 지켜보면서 서구문물을 배워야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서양으로 유학 가겠다는 비전이 생긴 니지마 조는 서양의 서적들을 탐독했다. 그러다 성경을 읽었고 창세기 1장 1절에 크게 감동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서양의 교육과 예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던 니지마 조는 1864년 미국으로 밀항했다. 니지마 조의 밀항을 도와준 하디 선장이 그의 후견인이 되어서 미국 생활을 돕는다. 하디 선장의 도움으로 니지마 조는 메사추세츠주 앤도버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1870년 앤도버 신학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1874년 12월 6일 10여 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니지마 조 목사는 고국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다. 정부의 기독교 금지령이 여전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 전국을 돌면서 설교했고, 교토에 도시샤영학교를 설립했다. 도시샤영학교는 1877년 정부의 허가를 받고 도시샤여학교(현 도시샤여자대학)가 되었다가 1888년에 도시샤 대학이 된다. 일본 최고의 사립대학교로 손꼽힌다. 그토록 꿈꾸던 근대교육과 복음을 일본 땅에 전한 니지마 조 목사는 1890년 1월 23일 소천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일본 국민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곳이었다. 언젠가는 꼭 입학해서 훈련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선교사역들도 무지 틈이 나지 않아서 마음 한편에 묻어두었는데 코로나19로 작은 틈이 생겨 입학할 수 있었다.

뜻밖의 작은 선물도 받았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준비해주신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선물과 함께 조장님이 우리 부부를 찾아 오셨다.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꽃다발을 준비해오셨다. 환한 미소와 마음 뭉클해지는 따뜻함에 훈련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2021년 10월 9일, 결혼 41주년 기념일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25기 훈련생으로 입학했다. 하나님의가정훈련에서 정말 많은 숙제를 받았다. 남편의 장점 20가지 기록하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편지 쓰기, 이 좋은 계절 데이트하며 사진 찍기, 어디를 가든 둘이 손 꼭 잡고 다니기 등 낮간지럽고 부담스러운 숙제가 많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일들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이었다.

강사님들의 강의와 조별 나눔 시간은 치유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를 마친 강요엘, 임사라 선교사 부부(중앙아시아K국).

의 시간이었다. 생채기 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약함도 드러내면서 온전히 치유 받는 시간이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그 어느 만남보다 깊고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조장님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노력하지 않으면 쉽고 빠르게 배운 것을 잊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옛 습관이 있으니 수료하고 나서도 배운 것을 잘 정리해

서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총무님은 강사님들의 강의와 진솔한 조나눔을 위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열심히 작업을 해주셨다. 조원들은 쉬이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위로받고 은혜 되는 깊은 만남을 이어갔다.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 우아한 물 위 백조가 물밑에서 열심히 발질하는 것처럼 많은 분의

기도와 섬김, 희생이 있었기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갈등은 연합을 회복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고리를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부부는 서로의 품이 필요한 자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들었던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다. 이 내용을 늘 기억하면서 살려고 한다. 갈등도 연합의 한 과정으로 만들면서 늘 아끼고 풀어주고 우선순위에 두는 부부로 남은 생을 살고 싶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준 남편에게 감사하며 살고자 한다.

“해가 떠도 하나, 달이 떠도 하나, 우리 둘이 하나!”

언제,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될지 모르지만,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언제나 하나라는 우리 조의 구호를 되새기며 살아야겠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부의 연합과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살 것을 다짐한다. / 임사라 선교사(중앙아시아K국)



코로나19, '아웃리치'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분당B공동체 함양 의탄교회 아웃리치

2년 만의 아웃리치

지난 10월 23~24일 분당B공동체가 함양 의탄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우리가 처음 함양에 간 것은 2018년 10월 국내 아웃리치 때였다. 그해 여름 공동체 성도들이 대만 아웃리치를 다녀온 터라 참여 인원이 적은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성도 57명이 참여해서 대형버스가 모자라 교회 승합차까지 빌려야 했다. 함양의 모 교회에서 계획된 사역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당시 농어촌사역을 담당하셨던 장로님이 근처 교회들을 둘러보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대형버스에 대다수 성도들을 태워보내고, 남은 사람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들렀던 교회가 의탄교회였다. 최경희 목사님이 차세대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교회 수리할 일들을 마을의 남자 집사님께 쉽게 요청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시던 게 잊히지 않았다.

2019년 우리 공동체는 다락방 단위의 국내 아웃리치를 계획했다. 순장들이 논의해서 의탄교회 아웃리치를 가기로 했다. 최경희 목사님이 교회 페인트칠과 주변 청소를 요청하셨다.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장로님과 5명의 순장들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의탄교회에 도착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페인트칠을 했다. 페인트칠을 마친 다음에는 목사님



분당B공동체 아웃리치팀과 최경희 목사(함양 의탄교회, 사진 가운데).

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사역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나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사역이 끝나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카페에서 다락방 모임을 한 것이다.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자주 보는 얼굴이었지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가 많았다.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믿음의 선후배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인해 모든 아웃리치가 중단되었다. 의탄교회에도 가지 못했다. 의탄교회에 다시 연락하게 된 것은 지난 9월이었다. 2년여 만에 의탄교회에 연락했더니 목사님이 반색하며 전화를 받으셨다. 우리가 칠했던 페인트가 지난해 일부 벗겨져서 한여름에 목사님이 직접 수선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마음이 너무 아

팠다. 2019년 아웃리치에 함께 했던 순장들이 다시 모여서 코로나19로 흩어졌던 다락방이 하나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의탄교회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교회 미관 작업(페인트칠)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의탄교회 이웃 두 가정에 사료박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사료의 쌀을 나눌 수 있었다. 2년 만에 보는 의탄교회와 담임목사님, 함께 한 팀원들, 의탄교회 주민들과의 나눔 등이 전보다 더욱 풍성했다.

맑은 가을 하늘과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가득한 산을 보면서 마치 즐거운 여행을 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반가운 인물도 찾아왔다. 개인사업으로 순천으로 내려갔던 조두현 집사님이 의탄교회를 찾아왔다. 반가운 지체와의 만남과 교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큰 기쁨이었다. 함양 의탄교회 아웃리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도시의 화려함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삶을 돌아보고, 영적 각성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의미 있었다. 2년 만의 의탄교회 아웃리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김유진 집사(분당B공동체)



사진은 지난 11월 19~20일 대전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이스라엘 선교세미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전온누리교회 이스라엘 선교세미나

지난 11월 19일(금)과 20일(토) 대전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선교세미나가 열렸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선교세미나에는 예배당 132명, 온라인 65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교세미나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대전온누리교회 2020년 3월 이스라엘 아웃리치의 대안으로 준비되었다. 대전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교를 품고 기도해왔다.

이스라엘 선교세미나에서는 오하평 선교사(샬롬이스라엘, <이스라엘 고난과 회복> 저자)가 강의했다. 오 선교사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상처가 치유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달라”면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는 “이스라엘 선교가 완성되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

면서 “이제는 이방인 교회인 우리가 유대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고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선희 집사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수정 집사는 “유대인들이 가진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선교사 허입, 훈련, 파송을 논하다

제7차 온누리 선교컨설팅, 70여 명 참석

2000선교본부가 ‘변화하는 선교 상황에 따른 선교사 허입·훈련·파송’을 주제로 제7차 온누리 선교컨설팅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경기도 가평 컨벤션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제7차 온누리 선교컨설팅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목사, 임훈 장로, 이승배 장로 등 온누리교회 선교리더십 70여 명이 참석했다. 선교 컨설팅트는 변진석 원장(한국선교훈련원), 조명순 선교사(한국형선교개발원), 장창수 선교사(WEC선교회)가 참여했다.

변진석 원장(한국선교훈련원)은 “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선교사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소명, 은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순 선교사(한국형선교개발원)는 “다음세대를 선교사로 세우고, 미래 선교에 적합한 본질적, 맞춤형, 상시적, 선교 훈련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창수 선교사는 “시대에 맞지 않은 교육들을 걷어내고 선교사 주도적인 교육, 선교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 커넥트에서 함께 선교해요!”

선교사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선교플랫폼

온 커넥트에서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선교사들이 많다. 온 커넥트는 선교사와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동역하는 온라인 선교플랫폼이다. 선교사들과 동역하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온 커넥트는 숙소, 차량, 의료, 통역, MK(선교사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온케어’, 자유로운 재능기부 요청과 재능기부가 더해지는 ‘온마켓’,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온프로젝트’와 기도편지를 전달하는 ‘온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700명의 선교사와 성도 280여 명이 온커넥트를 이용하고 있다.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참가자 모집

CGN TV가 주최하는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12월 31일까지 기독 OTT ‘풍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퀴즈는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톨레레게>에서 출제된다. 참가

자들은 <톨레레게>와 <말랑말랑 톨레레게>를 시청하고, <톨레레게 게임>을 즐기면서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을 준비하면 된다.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은 2022년 1월 1차 예선과 2차 예선, 2월 본선, 3월 결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3275-9422

11월 세례자

■서빙고	박 준 200626	김성규 이하나	유진수 최아람	전희종 윤선영
고은정 810822	박민석 김영신	김서우 200303	윤승민 190626	정은우 190508
김소영 710226	이주아 200330	김현수 김숙진	윤지원 남자영	정종철 박지연
김영훈 761001	이양우 박미운	김지안 191010	윤현진 200126	차시호 190102
김은비 801020	이주이 200330	김승관 임미라	윤현상 김수진	차세진 정세훈
김지경 900212	이양우 박미운	김진환 200108	이윤찬 210205	허 강 190228
신예나 810222	이재훈 200125	김승기 이연주	이종우 성수경	허 준 이수나
이수현 720604	이경규 조미혜	나겸재 200331	이로운 191031	허 온 190228
정천모 650710	이하영 200109	나인석 권나영	이형철 조아름	허 준 이수나
조경민 950707	이용영 김예원	나은우 201012	이로하 210329	허 선 200707
차기배 620102	나호성 이복영	이형철 조아름	허 원 가나현	
■양재	박은유 190401	이주아 190404	현시아 190916	
권재이 191129	김민정 720114	박윤성 김 선	이승준 함조름	현동환 김세빈
권오덕 김구슬	김성민 851122	송하람 190718	이갑하 200424	
김나은 191004	류지성 700702	송영복 김정하	이승준 함조름	
김세홍 이수진	박매자 440323	송하은 200102	이다하 200424	
김아라 210607	박창현 720207	송정호 김예지나	이승준 함조름	
김태정 윤도예	임미라 890416	신주는 201018	이하은 190306	김다윗 981111
김제니 200308	정홍근 900306	신영준 이지예	이광선 이병희	김의림 001109
김지민 고희지	조진우 730516	엄준영 180405	이하준 191224	
■입교	엄영남 손이정	이경훈 송정은		
문하영 200113	정수영 821110	엄소영 200606	이현이 210414	성주희 980228
문현수 김소현	유아	엄영남 손이정	이한석 이효정	이 경 831125
문하은 210618	권승재 200115	여하임 200110	이해나 210414	유아
문현수 김소현	권현욱 오주희	여인평 최형선	이한석 이효정	이서아 201222
문하준 200113	김리엘 190810	유주안 200415	전하진 191123	이형찬 박새롬

예배를 세우는 반주자

찬양 반주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을 위한 반주 입문 클래스 ‘예배를 세우는 반주자’ 세미나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8주 동안 온라인으로 열린다. 기본 코드 연주법, 보이싱, 왼손연주법, 페달 사용법, 후렴 코드 연주법, 간주만들기, 애드리브 연주 등을 주제로 임진현 강사(뮤지컬 ‘평양마리아’ 음악감독)가 강의한다. 회비는 10만 원이다.

문의: 02-2078-3267

김포M센터 기부 요청 냉난방기, 차량

김포M센터에서 냉난방기(40평형용), 셔틀 차량(스타렉스)을 후원해 줄 성도를 애대게 기다리고 있다.

김포M센터에서는 5개 언어 예배모임(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다문화 꿈땅, 영어 파워웨이브)과 OGA(온누리 글로벌 아카데미), 한국어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10-6869-4290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

통일위원회, 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지난 11월 25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공동포럼이 열렸다. 통일위원회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개최한 특별공동포럼에는 100여 명(현장참석, Zoom, 유튜브)이 참가했다.

김창수 연구위원은 ‘미·중 경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중 경쟁기에 한반도와 평화통일 외교를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익

이 무엇인지 찾고, 그 가치와 이익을 지키고 나눌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빈 교수(前 장로회신대학교 총장)는 ‘한국 교회의 역할은?’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분단 상황을 고착시키는 이데올로기가 통일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서 “역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통합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62기 온라인 내적치유학교

12월 10~11일, 17~18일 오후 3시~9시

62기 내적치유학교가 온라인(Zoom)으로 개강한다. 12월 10~11일, 17~1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내면의 치유와 회복된 삶을 원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성도는 아이스쿨, 타교회 성도는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내적치유학교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성경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다. 치유와 회복, 역기능 가정의 회복, 관계회복과 감사 나누기, 애착의 고통과 회복, 성숙함과 동기화, 기쁨의 회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909-0195, 010-2596-1014

■ 내적치유학교 수료 간증



/ 임종선 성도(대전온누리교회)

내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한참 망설이다가 내적치유학교 신청 마지막 날 마음을 먹었다. 나도 모르는 내면의 나와 만나고, 내가 가졌을지 모르는 상처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내적치유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우리 모두 내적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내면에 있는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상처받은 성인 아이가 내 안에 있다면 영적 성장이 어렵다는 것도 배웠다. 영성과 신학, 과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직면하기 위해 어린 시절로 가보는 시도를 많이 했다. 외갓집에 혼자 있을 때 겪었던 두려움과 외삼촌의 폭력, 동네 아이들과 싸워서 피 흘린 수치심,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겪은 가난과 수치심, 아버지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 등이 다시금 내 기억 속에서 발견되었다.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상처들은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이어졌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지 않다. 자식들을 키우시고 가르치시느라 일만 하고 사셨던 아버지가 감사하지만 불쌍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기까지 했던 내 안의 성인 아이를 바라본다. 아버지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자 한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낀다. 오십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더이상 상처가 되지 않음을 안다. 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사랑의 시선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의 본체이시며 크시고 전능하신 구원의 주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적치유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파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온라인 내적치유학교를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스태프, 조장님들께도 감사하다.

■ 감비아 어린이 수술지원



/ 이교행 선교사(감비아)

페이선스 고메즈를 도와주세요!

우리 부부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2018년 추방되고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다음 사역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나’라는 탄식에 빠져있었다. 교회 주차장에서 만난 한 장로님이 “감비아는 어때요?”라며 소개해 주셨다.

페이선스 고메즈(4살)는 감비아에서 처음 만난 아이다. 감비아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를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는데 한 무리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원래 가정예배를 드리던 소수종족이었는데 한국 선교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2월 초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돌려보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다시 만나기로 한 그날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페이선스 고메즈가 그 사이에 있었다. 감비아는 365일 여름이라 샌들을 많이 신는데 페이선스 고메즈는 발이 보기에도 이상했고 걸음걸이가 불편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왼발이 말발굽처럼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아이 엄마에게 “발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서 가족의 기도제목이라고 했다. 페이선스 고메즈가 계속 눈에 밟혔다.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심정이 생겼고 CMN 이백권 팀장님과 김병순 장로님께 연락드렸다. CMN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권성택 교수님께 페이선스 고메즈의 수술 가능성을 확인했다. 권성택 교수는 비슷한 사례를 가진 아이의 수술을 한 적이 있다면서 더 자세한 상태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 X-RAY를 찍어보냈더니 페이선스 고메즈의 왼발에는 뼈가 3개 있었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다. 희망을 품고 올해 7월부터 모금을 했다. 온누리교회 5개 선교기관과 공동체에서 후원을 약속했다. 지금 페이선스 고메즈 모녀가 한국에 와 있다. 양지에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수술을 위한 진료를 받고 있다. 11월 29일에 수술 일정이 잡혔다. 수술 비용 일부는 후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외과수술은 수술만큼이나 재활이 중요하다고 한다. 페이선스 고메즈가 내년 2월 9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재활 치료를 할 예정이다. 페이선스 고메즈가 잘 먹어야 건강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좀처럼 먹지 않아 걱정이다. 페이선스 고메즈가 수술을 잘 받고 뛰고 걸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후원 문의: 031-336-1042

■ NGO 더멋진세상이 간다!



/ 김상훈 PM(NGO 더멋진세상)

중남미에서 움트는 또 하나의 희망

코로나19의 여파는 많은 선교지에 어려움을 줬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그 피해가 적지 않았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 악화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달 선교지의 변화된 상황과 필요를 돌아보기 위해서 중남미 현장을 다녀왔다. 멕시코 도시 빈민들이 있는 티후아나지역의 푸엔테스마을에서 직업훈련학교 현판식이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더 멋진 마을사업’ 후보지로 물색 중인 티후아나 외곽의 린콘시또마을의 리더들을 만나 학교와 우물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의 이재민들과 재개발 난민들이 정부 시책으로 이주해서 모인 린콘시또마을에는 8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다. 하지만 린콘시또마을 인근에는 학교를 포함한 어떤 기반 시설이 없어서 오랫동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서 멕시코 티후아나의 도시 빈민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어 감사하다. 과테말라에는 화산이 많은데 그중에서 3개가 활화산이다. 활화산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안드레아스 오수나’라는 오지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을 들어서자마자 만난 아이의 등에는 자기 몸만큼 커다란 통이 지어져 있었다. 걷는 순간부터 노동을 시작한다는 이곳 아이들은 커피 수확 시기인 지금 무거운 커피 자루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마을을 지탱해 주는 커피 생산 시설을 방문했다. 유향 성분이 많아서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병원이 떨어져 응급 상황 대처도 어려웠다.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교육, 필요한 정수 시설 설치, 구급차 배치 등을 논의했다.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 생활 환경 개선과 교육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양계장이 시범운영 되고 있다. 과테말라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여정은 LA온누리교회 선교팀 리더들과 NGO 더멋진 세상 협력 선교사님들과함께 CHE(Christian Health Evangelism)교육을 했다. 이 교육이 현지 주민들에게 전달될 때 공동체 의식이 개선되고, 총체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 아제르바이잔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간증



/ 김장기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새 팀장님과 함께!

지난 10월 마지막 토요일 유난히 높은 가을 하늘이 참으로 화창하고 아름다웠다. 그날 ‘아제르바이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아사모)을 이끌 중보기도 팀장을 임명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인구의 98%가 무슬림으로 터키와 형제국이다. 온누리교회가 정한 미전도종족 선교 대상 국가이기도 하다.

매해 JDS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은 여름 아웃리치를 간다. 그중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팀의 팀장이 1년 동안 아사모의 팀장이 되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2층 쉼터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한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아사모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어 리더를 세울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아제르바이잔 아웃리치를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임으로 아사모 중보기도 팀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번에 연임된 팀장님은 아사모 초창기 멤버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발적으로 섬긴 선교 열정이 충만한 분이다. 아사모 팀장 연임 감사예배 내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신이 났다. 오랜만에 팀원들을 직접 만나서 그런지 반갑고 설렜다.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사모 팀원들은 자발적으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섬기는 헌신적인 후방 선교사역자들이다. 그 누구도 아제르바이잔 아웃리치를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없다. 예수제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 땅으로 보내셨다. 이름조차 생소한 그 나라와 백성들을 마음 깊이 품게 하셨다.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아제르바이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다. 몇 사람이 모여 기도했던 모임이 14년 동안 수많은 후방 선교사역자들을 세우는 기도모임으로 발전했다. 세 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지금은 20개국 30~40명에 이르는 해외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섬기고 있다.

새 팀장님의 헌신과 섬김 속에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아제르바이잔과 세계 선교를 향한 후방 선교사역자들의 중보기도가 이어질 것이다. 함께 Acts29 비전을 꿈꾸고 기도할 것이다.

장로칼럼

예수님의 제자, 온 누리의 교회



홍범식 장로
(두란노해외선교회)

1985년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34살 청년 홍범식이 있었다.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성경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이 인연이 되었다.

“여러분은 온누리교회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당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셨다. 한번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우는 소리를 했더니 “베드로도 대학을 안 나왔다”는 한마디로 성도들을 조용히 시키셨다.

초창기에는 하용조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릴 만큼 교회 재정이 빠듯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용조 목사님 사례는 충분히 쟁겨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데 우선순위를 두셨다.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아웃리치를 갔다. 한 성도님이 십일조를 하려고 현금 봉투를 채워오셨는데 그날이 마침 아웃리치 가는 날이었다. 양복 안주머니에 현금 봉투를 두고 안절부절못하다가 하용조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십일조를 쟁겨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셨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현금 봉투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왼쪽 주머니에 있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웃리치를 가는 교회에 현금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뒤로 그 성도님은 아웃리치를 갈 때 몇 번을 더 십일조 현금을 하셨다.

하루는 하용조 목사님이 나를 부르셔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다. “목사님 이거 저 용돈 주시는 것은 아님 텐데 뭘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구제헌금을 줬는데 내가 성도들 사정을 잘 아니까 필요한 성도님들께 나눠주라고 하셨다. 돌아서서 봉투를 봤더니 꽤 큰 액수였다. 재정 집사님께 드리면 목사님 사례도 드리고 교회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갔다. 하용조 목사님은 구제헌금은 구제를 위해 써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목사님의 가르침과 삶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 누리를 섬기고, 온누리교회는 온 누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 온누리교회 성장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 창립하고 5년 안에 성도 5천 명의 교회로 부흥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목사님 꿈이 참 야무지다’고 우스갯소리도 했었다. 그런데 정말 창립하고 5년 안에 성도 5천 명이 넘었다.

성도 수가 많아지면서 약속을 해야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즈음 하용조 목사님이 나에게 “홍 집사 고마워”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이냐고 여쭙봤더니 내가 못 건디고 금방 떠날 줄 아셨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창립 당시 성도들은 회장, 박사, 교수, 사장, 의사들 뿐인데 흔히 말하는 블루칼라는 나밖에 없었다. 하용조 목사님이 꿈 꾸는 교회는 돈을 잘 버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라고 하셨다. 나는 그저 말씀을 배우는 게 재미있고 선교하는 게 즐거워서 그런 것은 전혀 잊고 살았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적게 배우고 적게 버는 것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었다. 지난 37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계속).

권사칼럼

“제가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백성희 권사
(경기A공동체)

나는 마취 전문 간호사로 병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 대부분 수술 환자를 살피고 대하는 일을 한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전에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매진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

셔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전도는 어느새 내 일상이 되었고,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도 전도를 막을 수 없었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다.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주면 마음이 열리고 그 틈을 타 복음을 전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시는 일에는 팬데믹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루는 교회 권사님이 골절로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 권사님께 기도해주러 올라갔다가 연로하신 어르신님을 보았다. 체력이 안 좋아 보이는 어르신 옆에는 살뜰히 챙기는 따님으로 보이는 분이 있었다. 다가가 말을 붙였더니 며느리였다. 누워 계신 어르신은 시어머니인데 곧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다고 했다.

“제가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늘 하던 대로 질문을 드렸다. 며느리는 고맙다면서 내게 기도를 부탁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르신님을 만드셨다는 사실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렸다.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니 복음을 받으셔야 해요!”라고 함께 외쳤다. 어르신은 “아멘”으로

답하셨다. 어르신은 영접 기도를 하시고 일주일 뒤 소천 하셨다.

또 하루는 꿈 속에서 끌어질 것 같은 어르신님을 붙잡고 연신 말을 붙이고 있는 보호자를 보았다. 따님이었다. 그분에게 다가가 “제가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라고 여쭙봤다. 따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흔쾌히 허락하셨다.

“너무 감사해요! 아빠는 믿지 않는 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놀라워요!”

따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안성까지 달려왔다고 했다.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내가 올라왔으며 영영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에게 보내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 어르신께 기도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어르신은 어눌한 입술로 “아멘”을 연달아 말씀하셨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목사님께 세례를 부탁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님의 세례를 권하려고 따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방금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안성으로 다시 오고 계신다고 했다. 따님은 며칠 후에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오늘 떠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다고 하셨다. 가족의 기도가 응답 되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셨다.

최근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졌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한다.

신앙에세이



김선재 목사
(서빙고 차세대)

서빙고온누리교회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을 이른 아침 홀로 걷은 적이 있다. 공원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이따금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었다. 문득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시간,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행복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나를 보고 함박웃

음을 짓는다면 덩달아 웃음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내 이웃이 행복하면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웃의 이웃이 행복해도 증가하고, 이웃의 이웃의 이웃이 행복해도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하는가 보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 책에서 읽은 행복의 영향력이다.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지 둘러보자.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만큼 내가 행복의 영향력을 받고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창 12:2-3).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또 그 이웃의 이웃들까지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섬김은 나의 이웃에게 잃었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행복의 영향력

마치 어둠이 드리우듯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전염병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행복을 빼앗아 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 5:13-14).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해주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주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빛으로서 주변에 행복을 더해주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많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 역시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다. 절대 잊지 말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5절).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자녀 됨의 신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락한 피조물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되시고, 율법 아래 나서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6~7절).

4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6절에서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 됨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의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롬 8:16).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신하는데 왜 연옥이 있고 면죄부를 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사실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야”라면서 고소하고 “너는 멸망을 받아야 한다. 너는 절망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사단의 부르짖음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틀린 말로 우리를 공격하기보다 맞는 말로 공격합니다. 율법 앞에 맞는 말입니다.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중간 단계로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약속으로 향하게 하는데, 사단은 거기서 머무르게 하고 그것을 종착점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은 무력하고 천박한 것이라 비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단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르짖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엄청난 약속과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자신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안타깝게 호소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며 환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 아들로 여김이 합당치 않으니 저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는 불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행하신 용서와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온전한 아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죄 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좋은 아들처럼 여겨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사랑에 확신이 없을 때 자꾸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아들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더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됨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정운오 장로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팀)

이를 막아서서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2013년 사회선교부 출범 초기 사회선교가 생소한 사역이어서 성도님들의 오해도 있었다. 생명과 환경팀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의 문제가 복음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했던 것 같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2010년 제3차 로잔대회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선포한 ‘케이

프타운 서약(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의 헌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서약은 10가지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이다. 이 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세상, 곧 창조세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보는 일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남용하고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창조세계를 돌보고 그 풍부한 자원들을 책임 있게 사용하되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곧바로 총체적 선교와 연결된다. 총체적 선교란 개인과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창조세계까지 죄로 인해 깨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므로(롬 8:22) 이 셋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포함되는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롬 8:19).

총체적 선교 정신을 따라 생명과 환경팀은 교

회 내에 ‘Zero Waste, Zero Plastic, Zero Leftover’(쓰레기, 플라스틱,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에너지 사용 줄이기, 그린 스티이션 설치(자원 재순환을 위한 거점형 쓰레기 분리수거장), 그린 아웃리치(환경 아웃리치), 유기동물 보호기관 후원 등의 사역을 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에는 환경 관련 홍보도 했다. 기후 위기를 위시한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 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선언은 지구의 자원들을 파괴하고 낭비하며 오염시키는 데 참여하는 소비주의라는 위상숭배를 묵인한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생태계를 돌보는 긴급하고도 예언자적인 책임에 헌신하도록 요구한다.

소비주의는 소비와 소유를 통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다는 왜곡된 세계관이다. 탐욕과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업의 과잉생산, 탄소배출, 기후 위기를 순차적으로 일으킨다. 생명과 환경팀은 이러한 환경

위기 원인에 주목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와 소비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미니멀라이프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물품 구매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재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나누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소비습관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는 운동이다.

‘탄소 금식’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기후 위기의 직접 원인인 탄소배출을 줄이는 운동이다. 비기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 금식을 이제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역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착취는 인권유린을 낳고, 창조세계의 착취는 환경 파괴와 오염을 낳는다. 이는 우리의 탐심의 결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고 창조질서를 교란하는 불의와 악이다. 우리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건강한 생명 운동이 일어나 창조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일에 더 많은 성도가 함께하기를 부탁한다.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

성경 바람잡이가 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업로드

 유튜브 **CGNTV** 채널 검색



2022년 CGNTV 말씀달력이 출시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2022년을 준비하세요.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796-2243

